

물은 물이 아니고...

이 경 식 <국립공원협회 회장>



미국의 저명한 여류 사회학자 에스터 펜체프는 공해, 가난, 굶주림, 폭력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4대 공적(公敵)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그것들을 「목시록의 4기사(騎士)」라고 불렀다. 4기사(騎士)라 함은 성서에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지구상에 재난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흰말을 타고 온 첫 번째의 기사는 활을 쏘며 왕관을 차지한다. 정복자였다. 두 번째의 기사는 붉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른다. 붉은 색과 칼은 전쟁을 의미한다. 검은 말을 탄 세 번째의 기사는 곡식을 썰 수 있는 저울을 갖고 와 굶주림을 경고한다. 죽음과 악질(惡疾)과 공해(公害)를 상징하는 네 번째 기사는 회색의 말을 타고 온다.

모두가 죽음의 사자(使者)들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공해의 파급 속도나 증가 비율은 단지 공해 현상이 해롭다든가 불쾌하다든가를 따질 정도를 넘어서서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지경에까지 심화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파괴적인 과정에 의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물과 공기이다. 순수한 물의 수요량은 매우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주요 수원지인 하천들은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성냥을 그어 대면 불

이 불을 정도이다. 대기는 어떠한가? 도시 중심지 상공의 공기는 산화 금속제의 복합 화합물이라든가 타르, 탄소, 재, 매연 등으로 두껍고 단단하게 오염돼 있다.

물과 공기는 생각대로 그렇게 무한정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인류가 대기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효과적인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과거 50년 동안에 겪은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결과가 닥쳐올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들의 예측만은 아니다.

공기와 물은 모두 자연이다. 공기는 산이요, 물은 물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모두가 병들어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들어 쇠약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사람들에게 의해 조종되는 그 범죄의 주범들은 각종 공업 폐기물, 광물 채굴, 지각(地殼)파괴, 하상(河床)이나 해안 준설, 폐비닐, 유리병, 화학세제, 산업쓰레기 등등 끝이 없다.

얼마전 어느 작가가 쓴 환경관찰기에서 “이제 우리 자연의 산(山)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보고 참 그럴 듯 하다고 공감했다. 산에 가면 피부병에 걸리고 물에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모두들 말 타고 무기 들고 잃어버린 산과 물을 되찾으러 나서야 한다. 현대의 기사들은 그래야 하는 것이다.

